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8/1℃ 목포 -4/2℃ 여수 -5/2℃

단기 4343년 (음력 11월 23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68호 1판 2010년 1월 7일 목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지역국회의원 20명 중 13명

"시민배심원 유보·반대"

6명은 찬성…민주, 경선 방식 결론 못내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 가운데 13명이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거나 부정적 의사를 나타냈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최종결정을 내려야 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도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6일 광주일보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20명에게 민주당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과 관련, 전화 설문에 나선 결과, 6명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한 반면, 9명이 유보 및 신중한 입장을 보였으며 4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찬성을 나타낸 의원들은 과감한 기득권 포기를 통해 민주당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기정 의원은 "시민배심원제 도입에 대찬성하며 일각의 우려는 기우거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찬성 입장을 보인 의원들 가운데 일부는 "공정성과 대표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기도 했다.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신중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낸 의원은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의 취지와 명분에는 공감하나 정치 현실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현실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민공천배심원제의 실질적 도입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박지원 의원은 "시민공천배심원제의 도입의 명분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치 현실 등을 고려하면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정당 정치와 책임 정치에 배치되며 시민의 대표성 및 지역의 현실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공정성 논란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낸 의원은 6명으로 집계됐다.

주승용 의원은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자치단체장을 외부 인사들에 의해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 같다"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통합과 혁신위에서 상정한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세균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일단 당헌·당규 개정을 통한 경선 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입구 막힌 쏘울 공장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6일 광주시 서구 기아차 제2공장의 쏘울 증축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기아차 노조 몽니…쏘울 증산 제동

제2공장 증축공사 현장 차량 봉쇄

수출상품 볼모 임금협상 "너무해"

기아차 노동조합이 글로벌 전략 차종으로 육성 중인 '쏘울'을 볼모로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어 비난 여론이 높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6일 회사측의 쏘울 증산을 위한 제2공장 증축공사에 반발해 전날 광주공장 공장장실을 점거한 데 이어 이날 새벽 5시30분께 쏘울 증산 공사현장을 봉쇄했다.

노조는 "지난 연휴 동안 회사 측이 기습적으로 증축공사를 시행했다"며 "최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임금교섭이 타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축에 들어갈 경우 회사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키로 한 결의에 따라 봉쇄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에 맞서 시행사인 협력업체 근로자와 사원 등을 동원해 공사장 진입을 시도했으며, 노조는 차량 3대로 공사장 입구를 봉쇄하고 회사측과 약 2시간 동안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들과 회사원들 사이에 가벼운 몸싸움이 빚어지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회사 측은 물리적 진입이 어려워지자 노조에 협조를 요청했고 작업장 근로자 일부가 공사장으로 들어가 오전 10시께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노조는 7일 오후 3시 광주공장에서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철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공사장 입구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밀린 쏘울 주문량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공사기간 등을 감안해 즉시 증축공사를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고 노조도 공장 증설 공사는 이미 수용했었다"며 "임금교섭과는 관계없는 불법행위인 공사장 점거농성을 즉각 그만 두라"고 촉구했다.

이상걸 광주경제살리운동본부 기획단장은 "지역 주력업체인 기아차가 쏘울 50만대 증산 등 청사진을 밝혀 지역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있다"며 "노조는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울 게 아니라 지역민과 지역경제도 생각해 큰 틀에서 양보하고 화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타지역 유치기업 세종시로 빼오지 말라"

李대통령, 세종시 기업유치 5대원칙 제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세종시 기업유치 방안과 관련, "타 지역에서 유치 또는 유치하려는 사업과 기능을 세종시로 빼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주례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원칙'을 지시했다고 정 총리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신규사업과 현지 고용에 기여하는 사업을 위주로 유치하는 한편 해외 유치 기능 등을 감안, 충분한 자족 용지를 남겨둘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5대 원칙' 가운데서도 현지 고용과 주민 사정을 살피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정 총리는 소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주례보고에서 A4 용지 70여쪽 분량의 세종시 수정안 '초안'을 보고했으며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 예정대로 오는 1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기업과 대학 유치가 90% 정도 진행됐으며 현재는 세부사항을 조정 중"이라며 "오는 11일 수정안과 함께 유치 기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알 림

제55회 전국대회 호남예술제

음악부 지정곡 발표 13건

2010년 4월28일 ~ 6월30일

전국 최고의 종합예술제전으로 자리 잡은 제55회 호남예술제가 2010년 4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지에서 열립니다.

제55회 호남예술제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가자격 : 국내 거주 전국 초·중·고등학생 및 이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
▶경연기간 : 2010년 4월 28일(수) ~ 6월 30일(수)
▶부 문 : 음악 · 무용 · 국악 · 미술 · 서예
▶신청기간 : 4월1일(목) ~ 4월9일(목) ~ 방학로, 우편, Fax접수
▶자세한 일정은 2010년 3월 초에 발표
(http://art.kjnedu.co.kr 홈페, 문의 : 062-220-0543)
▶시 상
· 우수학교/우수지도교사 시상
· 개인 · 단체 : 최고상, 금상, 은상, 동상
· 합창 · 합주제 : 대상, 금상, 은상, 동상
· 최고상, 대상 : 소정의 장학금 지급

주 최 : 광주일보사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